

## 내가 만난 하나님(예수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행 4:20)

<b>제 목</b>	“하나님은 나의 <u>치료자 / 동반자</u> ”		
<b>공동체/다락방/순</b>	브라보/서울A/1순	<b>이 름</b>	박시형

### 1. 하나님을 만나기 전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절에 다니셨던 할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 할머니와 절에 다니면서 절밥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동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친구들이 있었고 교회 활동이 재미있었고 상품도 주었기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여름성경학교에서는 전도왕 상을 받기도 할 만큼 초등학교 때는 주일학교를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중고등부 때도 열심히 다니기는 했지만 성경공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놀기 좋아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선배들이 임원을 해야 하는데 학업 때문에 하지 못해 고1 때, 학생 회장을 맡았다가 어머니의 반대로 내려 놓으면서 신앙적으로 내리막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대학교를 진학했고 여전히 성인 성가대도 섬기기는 했지만 설교시간만 되면 늘 즐기만 했고, 예배를 마치고는 늘 선배들과 놀러다니고, 대학교 생활은 늘 술과 운동으로 친구들끼리는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긴 채 살아갔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 2.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나요?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이 되고서야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세상 속에서 놀기 좋아했던 근본적인 이유의 문제를 위해 기도원을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기도원이 금식기도원인 줄 모르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7일 금식을 작정하게 하셨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 7일째 되던 날 저녁에 예수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힘들고 숨고 싶었던 그 시기에 난 늘 혼자라고 느꼈던 그 때, 그 시간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셨고 그때 예수님은 제 곁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 주셨습니다. 밤새 그 때를 기억하며 아파서 울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로 울며 밤을 새웠습니다. 밤을 새우고 아침을 맞이할 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아침 공기와 햇살과 자연이 눈에 들어왔고 문제의 해결을 경험했습니다.

### 3.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예수님을 만난 이 후의 삶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경험했습니다.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채 30년을 살아왔던 제 삶 속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장의 관계의 회복은 어렵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고 나서는 대인관계의 문이 열림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같은 멘토님을 만나게 되면서 낮은 자존감에 힘들어 했던 과거를 잊고 하나님의 인정을 경험하고 자존감의 회복을 경험하면서 비로서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늘 짐같이 느껴졌던 신학을 기쁨으로 가게 되었고,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로 하나하나 채워짐을 경험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